농촌가족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역할

김관수 ·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Changes in Family Struture and the Role of Females in Korean Rural Areas

Kim, Kwan-Soo · Kim, Tai-Hun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 7 Darakri, Gangnae, Cheongwongun, Chungbuk, Korea.

Abstract

Rec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such as the increase in old-aged people, in Korean rural areas have forced to change the role of famales. This phenomenon has been mainly due to the rapid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in parallel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since 1962. Traditionally, the role of famales in rural areas was closely related with ordinary works of housewives ; that is, childbearing, fostering babies and miscellaneous houseworks, etc. The situation, however, is drastically changing nowadays and the role of feamales in rural areas should be reconsidered.

Their desirable role in the time of modernization of agricultural sector may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respects : First, the range of housewives work in the rural areas is necessary to expand. Since they should engaged in not only the ordinary houseworks, but also the fieldworks due to the shortage of labor forces or sideworks due to the low income and the increase in liabilities.

Second, the females in rural areas are necessary to be specialists in order to assist males. Since our agricultural production should be modernized not only to have a competition power with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but also to overcome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impor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ccording to the U.R Nagotiation. In this respect, the females should try to enhance their abilities in operating the agricultural equipments, and to be specialists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Third, the increase in housewives rationalt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is required to decrease the rapid growth of farm household liabilities. Since it is mainly caused by the irration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housewives have grea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Lastly, farm housewives may be contributed not to migrate from rural to urban areas without any clear vis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cent survey mentioned in the study, it indicates that housew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farm household.

Ⅰ. 서 론

家族單位의 전출과 많은 젊은 연령층의 개별 전출로 農村人口가 과소하게 되고, 노동력 부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할 뿐만아니라, 家族構成의 不均衡으로 家族의 社會的 解體를 촉진시켜서 농촌사회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가족 내의 젊은 연령층의 不在, 농업 노동력의 부족, 外地 居住 가족원과의 疎遠 등은 농촌사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할 뿐만아니라 농촌여성들의 역할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이 중심이었으나 농업노동력 부족은 여성의 농업노동력화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농촌여성은 농업노동과 함께 기존의 가사노동을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農村人口의 變化, 家族變化 및 農家經濟의 變化를 분석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촌 인구와 가족, 농촌경제의 변화와 농촌여성 역할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농촌 여성 역할의 현상과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실시된 여성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1989년에 실시한 '한국 가족기능 연구조사'의 결과(공세권 외, 1990 참조)를 이용하였으며, 농촌 부인의 가족내 의사결정 참여 정도나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농촌사회학회에서 주관하여 1992년에 실시한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조사'의 결과(김일철 외, 1993)를 주로 이용하였다.

Ⅱ.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

1. 農村人口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人口變化의 특징 중의 하나는 農村人口의 都市 移住이다. 1960년도에 총인구의 28.0%에 해당되는 약 7백만명만이 도시에 살았고 72.0%인 18백만명이 군부 지역에 살았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농촌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Table 1. 참조). 1980년에는 전국 인구의 반이 넘는 21백만명(57.3%)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전국 인구가 과거 20년 동안에 약 2.5백만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農村人口는 20년 전에 비하여 약 2백만명이 줄어든 16백만명(42.7%)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의 農村人口는 불과 10년후인 1990년에는 약 5백만명 가까이 줄어든 약 11백만명으로 총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 하게 되었다. 1988년에 통계청에서 추정한 2000년의 지역별 인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47백만명 중 80.6%에 해당되는 38백만명이 시부에 거주하게 되고, 군부에는 다만 9백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Table 1. 지역별 인구추이 : 1960～2000 (천명, %)

	1960	1970	1980	1990	2000
전 국	24,989	31,466	37,436	43,411	46,828
	(100.0)	(100.0)	(100.0)	(100.0)	(100.0)
시 부	6,997	12,953	21,434	32,298	37,750
	(28.0)	(41.2)	(57.3)	(74.4)	(80.6)
군 부	17,992	18,513	16,002	11,113	9,078
	(72.0)	(58.8)	(42.7)	(25.6)	(19.4)

자료 : 1) 1960～1990;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외국인 포함).
2) 2000 ; 조사통계국, 「우리나라 지역별 장래인구전망」 1988.

이것은 군부의 인구규모가 가장 컸던 1970년(18.5백만명)보다 반이 채 안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인구의 추세는 앞으로 都市人口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農村의 人口 寡少化를 격게되고, 나아가서 農村의 人口 空洞化 現象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農村 人口現象의 變化는 인구규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구현상은 현재 인구 자체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인구규모의 변화 내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촉진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를 人口의 年齡別 構造의 變化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인구의 연령별 구조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부에서는 출산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할 당시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출산수준의 영향으로 농촌 보다 0～14세 연령층의 人口 構成比(1970년의 37. 9%)가 낮았으나 젊은 연령층의 都市集中으로 0～14세 인구의 감소속도는 농촌지역 보다 완만하여 1990년에는 총인구의 26. 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Table 2. 참조).

그러나 농촌지역인 읍부와 면부의 인구변화는 더욱 뚜렷하였다. 0～14세 인구는 면부에서 1970년에 45.4%나 되던 것이 1990년에는 세 지역(시, 읍, 면부)중에서 가장 낮은 22. 5%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農村地域의 젊은 연령층이 대량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신규 출산수가 급속히 낮아지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일철 외, 1988 참조). 그러므로, 순수한 農村地域이라고 할 수 있는 면부의 인구중 65세 이상 老人의 構成比는 1990년에 시부 (3.6%) 보다 무려 6.7% 포인트나 높은 10.3%나 되었다. 이것은 農村人口의 老齡化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노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再生産에 따른 사회성원의 보충이 감소하고 나아가서는 인구자체의 소멸에 따른 사회해체까지도 예상하게 한다.

농촌사회의 老齡化는 사회자체의 自足的 발전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으며, 老齡化와 生産能力의 減少, 地域開發을 위한 投資對象에서 제외, 그리고 殘餘 젊은 연령층의 離農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농촌의 생산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악화로 移村現象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49~53; 박정은 외, 1988 참조).

Table 2. 지역 및 연령별 인구구조, 1970 및 1990

(단위: %)

지역 및 연령	1970	1990	1985	199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0~14	42.1	33.8	29.9	25.6
15~64	54.6	62.3	65.8	69.4
65+	3.3	3.9	4.3	5.0
시 부	100.0	100.0	100.0	100.0
0~14	37.9	32.4	29.7	26.4
15~64	60.0	65.0	67.3	70.0
65+	2.1	2.6	3.0	3.6
읍 부	100.0	100.0	100.0	100.0
0~14	43.4	35.1	31.2	25.9
15~64	53.4	60.8	63.8	67.6
65+	3.2	4.1	5.0	6.5
면 부	100.0	100.0	100.0	100.0
0~14	45.4	35.9	30.0	22.5
15~64	50.3	57.9	62.2	69.2
65+	4.3	6.2	7.8	10.3

자료 :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외국인 제외)

2. 農村 家族의 變化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6.8%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Table 3. 참조). 이러한 家族의 普遍性은 都市와 農村사이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권태환 외, 1993).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 까지 읍부나 면부의 친족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人口의 構成比가 시부에서 보다 높았으나 1990년에는 농촌으로 갈수록 그 構成比가 낮아졌다. 시부의 경우 9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읍부에서는 93.2%로 더 낮아졌고, 면부에서는 92.4%로 극소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추세의 변화는 親族家口에서 제외된 1인 가구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1960년에 시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던 1인 가구가 1980년에는 都市와 農村地域에서 비슷해지고, 1990년에는 시부(9.6%)에 비하여 면부(10.9%)에서 훨씬 높았다. 이것은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도시에서 젊은 인구의 1인 가구가 완만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노인들의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결과이다. 노인 1인 가구는 자녀들의 都市 移住와 配偶者의 사망에 따른 가구의 해체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앞으로 農村의 家族形態나 農村社會의 變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able 3. 총인구중 친족가구 거주 인구 및 일반가구중 1인 가구의 지역별 구성비, 1960~1990

지 역	1960	1980	1990
	(친족가구 거주 인구 구성비, %)		
전 국	96.8	95.0	93.6
시 부	96.1	94.3	94.0
읍 부	96.9	95.3	93.2
면 부	97.1	96.1	92.4
	(일반가구중 1인가구의 구성비, %)		
전 국	2.3	4.8	9.0
시 부	3.4	4.7	8.6
읍 부	2.7	4.5	8.9
면 부	2.2	5.1	10.9

자료 : 1. 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2. 권태환 외(1993: 20) 참조.

1960년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족은 결혼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同居하는 경우인 2세대 가족으로 이는 총가족의 65.4%를 차지하였다. 다음이 부모와 혼인한 자녀, 미혼의 孫子女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3세대이상 가족이 29.3%의 구성비를 보였다. 이러한 세대구성은 1960년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보인다.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0~90년 사이에 3세대 이상 가족의 구성비는 29.3%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1세대 및 2세대 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은 1세대 가족이다. 1960년 5.3%에 불과했던 1세대 가족은 1990년에 이르러서는 3세대 이상 가족과 비슷한 12% 수준

에 도달하였다. 2세대 가족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1990년에는 전체 가족의 약 4분의 3이 2세대 가족을 이루는 정도에 까지 도달하였다(Table 4. 참조).

농촌에서의 1세대 증가는 노인 부부만의 가족이 늘어난 연유이며, 젊은 부부의 증가에 따른 도시에서의 1세대 가구 증가는 農村에 비하여 微微한 증가에 불과하였다. 1960년에 시부의 1세대 가족(7.1%)보다 훨씬 낮았던 면부의 구성비(4.4%)가 1990년에는 17.7%로 증가하여 시부(10.7%)보다 무려 7.0% 포인트나 높았다. 이것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農村에 殘存하고 있는 노인만의 가구가

Table 4. 친족 가족(1인 가구 제외)의 세대 구성, 1960 및 1990

(단위: %)

지역 및 세대	1960	1990
〈전 국〉		
1세대	5.3	12.0
2세대	65.4	74.1
3세대이상	29.3	14.0
〈시 부〉		
1세대	7.1	10.7
2세대	73.3	77.3
3세대이상	19.6	12.0
〈읍 부〉		
1세대	5.8	12.0
2세대	68.6	71.2
3세대이상	25.6	16.9
〈면 부〉		
1세대	4.4	17.7
2세대	61.3	61.4
3세대이상	34.3	21.0

자료: 1. 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2. 권태환 외(1993: 26) 및 김응석 외(1993: 31) 참조.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년에 면부에서 전 가족의 34.3%나 되었으나 1990년에는 21.0%로 13.3%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시부(12.0%) 보다 9.0% 포인트나 높았으나 1960년의 차이(15.3% 포인트) 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구성비이다. 이것은 농촌의 家族形態가 擴大家族의 比重이 점차 줄어 들면서 核家族 中心으로 變化하고 있으며, 老人家族의 增加는 農村의 家族 解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970년 총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수한 核家族은 전체 가구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미혼의 형제들이나 同居人들이 함께 살고 있는 核家族과 합치면 전체의 약 4분의 3이 核家族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순수한 核家族의 構成比는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76.0%에 도달하고 있다. 반면에 直系家族은 같은 기간에 21.9%에서 약 반에 해당되는 12.5%로 감소하였다(Table 5. 참조). 核家族의 증가와 直系家族의 감소현상은 도시 보다 농촌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1970년 부터 20년간 도시에서 核家族은 0.7% 포인트 증가하였고, 直系家族은 5.7%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면부에서는 같은 기간에 각각 3.7% 포인트의 증가와 8.5% 포인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核家族은 夫婦로 구성된 가족, 夫婦와 未婚 子女로 구성된 가족과 偏父 또는 偏母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直系家族은 부부와 兩親 또는 親父母로 구성된 가족, 夫婦와 兩親 또는 偏親父母와 未婚子女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을 其他 家族이라고 분류하였다

Table 5. 친족가족의 가족형태 구성, 1970 및 1990

(단위: %)

지역 및 가족형태	1970	1990
〈전 국〉		
핵가족	71.5	76.0
직계가족	21.9	12.5
기 타	6.6	11.5
〈시 부〉		
핵가족	76.9	74.7
직계가족	16.8	11.4
기 타	6.4	11.4
〈읍 부〉		
핵가족	74.1	74.3
직계가족	19.9	13.7
기 타	6.0	12.0
〈면 부〉		
핵가족	66.3	70.0
직계가족	26.8	18.3
기 타	6.9	11.7

자료: 1. 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 권태환 외(1993: 30)참조.

Ⅲ. 農村經濟의 實態와 當面課題

農村經濟는 농업을 基盤産業으로 제조업과 서어비스업을 포함하는 地域經濟이다. 그러나 成長據點 開發論에 따른 지난 30여년 동안의 고도성장은 대도시 偏向性을 지닌 分極的 都市化·工業化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로인한 都市·農村간의 불균형 발전은 결국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大都市 集中이라는 사회현상을 초래함으로써 都市·農村問題

의 累積 惡循環을 惹起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외국농산물 수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농가소득 증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1994: 53~55참조). 이와 관련하여 農村經濟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자연환경적 성격과 부존자원에 따라 지역적인 比較優位가 가장 높은 기반산업을 선택·개발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이정환 외, 1992: 163참조). 그러나 농지면적이 狹小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는 근본적으로 대만이나 일본처럼 農外所得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농촌공업의 육성·개발 노력과 함께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온 농촌주민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農村地域의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1. 農村經濟의 實態

최근의 農村經濟 現況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農業人口 比率은 1965년의 55%에서 1992년에는 13%로 하락되었으나 GNP에 대한 농업부문의 附加價値 비중 또한 6%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離農現狀으로 農家戶當 家口員 數는 줄고 있는 반면 경지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都農間의 所得隔差는 1969년부터 실시된 이중곡가제와 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등으로 70년대 중반에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收穫遞減의 法則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와 농가의 무분별한 固定投資 및 교육의료비 지출증대 등으로 1992년말 현재 農家負債는 호당 평균 570만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또한 80년대 들어와서 농·공상품간의 鋏狀價格差의 확대로 농가의 交易條件은 악화되었고, 農村勞賃의 급격한 상승은 농가소득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總體的인 식량자급율은 65년의 94%에서 92년에는 34%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쌀의 자급율은 92년 현재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와 飼料用 穀物需要 增大에 따른 밀, 옥수수, 콩 등의 수입증대가 식량자급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증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국민 일인당 연간 식품소비 구조변화를 보면 쌀,보리의 소비는 감소되고 있는데 비해 밀을 원료로 하는 빵, 라면, 과자류와 채소류, 과일류, 육류, 계란, 우유 등의 소비는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수산부, 1993 참조).

Table 6. 주요 농업 지표

	1965	1975	1985	1992
농업인구 / 총인구 (%)	55.1	37.5	21.2	13.1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 GNP (%)	37.6	21.9	11.7	6.1
농가호당 경지면적 (a)	90.0	94.1	111.3	126.0
식량자급율 (%)	93.9	73.1	48.4	34.3
(쌀)	(100.7)	(94.6)	(103.4)	(97.5)
교역조건지수[1] (1990 = 100)	82.9	104.1	95.7	95.8
농가부채 (천원)	11	33	2,024	5,683
농촌노임지수 (1990 = 100)	2.8	13.2	73.7	114.6

*[1] 교역조건지수 = (농가판매 가격 지수 / 농가구입 가격지수) × 1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93.

2. 主要 當面課題

현재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주요 당면과제로는 農家所得 增加率의 鈍化 및 負債累增,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불리한 농촌생활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최근에 농가소득 증가율이 도시노동자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낮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소득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의 성장율 둔화는 제한된 경지면적과 이에 따른 收穫遞減 現象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수입 및 식품소비 「패턴」변화 등은 주곡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켰고 일손 부족에 따른 급격한 農村賃金 上昇도 農家收支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의 농가부채 누증은 농가소득에 비해 가계소비 및 투자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데 기

인하였으며 특히 무분별한 투자증대는 부채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소득은 농산물 생산 및 가격변동으로 불안정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小規模 零細農家에 의해 시장조건이나 소비자 기호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끝으로 농촌생활 환경의 악화이다. 농촌의 생활환경은 農村福祉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物理的 環境과 社會的 環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된 기간중 다소 개선되었으나 현재에는 都·農間의 도로, 전화, 상수도보급율 등에서 환경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자는 農村人口의 高齡化, 農村後繼者 不足, 空家나 空村의 發生에 따른 농촌환경 문제로 균형적인 경제 및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불리한 생활환경은 다시 농촌발전을 저해시키는 惡循環이 반복되고 있다.

3. 農家經濟의 活性化 方向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방향과 농촌여성의 역할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가. 長期推進方向

농가소득 증대는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現代化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두어져야 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 추진과 함께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에 의한 營農의 組織化가 前提되어야 한다. 우선 農業協同組合을 活性化하는 한편 농촌내부에 남아있는 상부상조의 정신과 미풍양속을 최대한 활용하여 部落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자본, 노동, 중간생산물 등을 전체적으로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국내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농업생산 구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곡의 생산구조는 영세농에서 기업농으로,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구조 변화에 맞추어 주곡 생산위주의 영농방식에서 탈피하여 收益性이 높은 경제작물이나 낙농제품 또는 수입대체작물 재배로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의 전문화는 國際競爭力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농산물이나 품목에 치중하여 값싸게 공급되는 수입농산물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지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는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가를 위해서는 농공지구의 조성과 지역 입지조건 및 실정에 부합하는 공장 등을 계속 설립,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농가들은 농촌지역의 조속한 공업화를 통해 농업을 副業으로 삼는 第2種 兼業農家로 육성하고 나머지 專業農家 및 제1종 겸업농가는 企業農으로 육성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農村地域의 生活環境 改善과 함께 농민들의 意識變化를 誘導하기 위한 經濟教育 내지는 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과거와 같이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환경개선은 현지에서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추가적인 離農을 방지하고, 서울지역에 過度하게 몰려있는 高等教育機關, 醫療機關의 地方分散을 위한 誘引政策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短期政策課題

단기적인 추진과제로는 각종 農業政策의 效率性 提高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農村經濟 活性化는 政治·社會的인 制度改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地域特性과 地域住民의 開發需要에 副應하도록 지방정부의 意思決定權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행정·금융 등의 制度改革을 통해 農村地域의 開發이 촉진되도록 地域均衡 開發政策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價格安定化 政策은 그 效率性이 提高되어야 할 것이다. 二重穀價制와 肥料價格 지원정책으로 인한 적자폭 증대는 재정 「인플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그 혜택이 重農이나 富農에 집중되어 영세농가 소득의 부진을 가격정책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農業構造의 現代化와 特化를 통해 선진국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질적 경쟁체제를 조속히 갖추어 나가는 것과 農外所得을 증대시키는 것이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향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농촌경제 실태분석을 토대로 할 때 농촌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족한 農村人力을 보완하기 위해 농기계를 作動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농가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

지 않도록 소비지출의 합리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농업의 전문성 제고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무분별한 都市移住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촌가정의 情緖的 安定에 기여하여야 할 것 등이다.

Ⅳ. 農村 女性의 役割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가족내의 地位에 따라서 役割이 구별되어 왔다. 家長은 일체의 契約 및 家産管理를 담당했고, 부인은 衣食住에 관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농업사회였던 과거에는 부부가 농사일을 같이 담당하였으므로, 부인은 家事와 農事로 인하여 勞動量이 남편보다 過重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역할은 변화되어 생산활동은 남편이, 소비활동은 부인이 담당하며 자녀양육은 부부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공세권 외, 1990 : 111~112).

그러므로 농촌 가족구조별 여성의 역할, 여성의 의사결정, 여성의 취업에 따른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하여 농촌 여성들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이용한 기존의 연구 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가족기능연구조사'(1989년)와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주관하였던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조사'(1992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1. 家族構造에 따른 役割 差異

가사활동은 어느 지역에서나 주부에 의해서 主導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擴大家族은 부인의 역할주도가 도시에서 71.0%, 농촌에서 74.2%에 이른다. 그러나 核家族에서는 주부의 역할주도가 도시에서 80.5%, 농촌에서 83.2%로 높아지고 있으며, 核家族은 물론 擴大家族에서도 농촌주부가 도시의 주부보다 家事主導率이 높았다 (Table 7. 참조). 부인 외의 역할주도자는 擴大家族에서 시부모와 남편이었고, 核家族에서는 남편이었는데, 이것은 농촌 남편이 도시의 남편보다 가사활동의 주도율이 높고, 심지어 농촌의 擴大家族에서 시부모 보다도 더 높다. 농촌에서 남편의 가사활동 주도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나 농업을 주로하는 농촌 남편이 집을 떠나 근무하는 도시남편보다 그만큼 가족과 접근해 일할수 있는 기회가 많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활동의 役割主導도 역시 부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사활동에 비해 그 주도성은 낮은 편이며, 특히 농촌에서 더욱 낮았다. 농촌의 擴大家族은 46.1%가, 核家族은 58.9%가 대외활동을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담당하는 비중은 擴大家族에서 36.6%, 核家族에서 27.4%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서 남편의 주도율은 擴大家族에서 19.7%, 核家族에서는 14.8%로 농촌보다 낮으며, 부인이 대외활동을 주도하는 경우는 核家族에서 67.1%, 擴大家族에서 62.1%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주부도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위하여 장거리 이동도 하여야 하므로 부인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Table 7. 지역및 가족형태별 가족원의 역할분담

(단위: %)

	도 시		농 촌	
	확대가족	핵 가 족	확대가족	핵 가 족
〈가사활동〉				
부 인	71.1	80.5	74.2	83.2
남 편	9.1	9.6	11.6	9.7
시부모	13.1	2.2	9.1	1.2
기 타	6.8	7.7	5.1	5.9
계	100.0	100.0	100.0	100.0
〈가족생활의 대외활동〉				
부 인	62.1	67.1	46.1	58.9
남 편	19.7	14.8	36.6	27.4
시부모	13.3	.0	8.7	.0
기 타	4.9	9.1	8.6	13.7
계	100.0	100.0	100.0	100.0
〈가계의 경제활동〉				
부 인	45.9	55.4	43.2	51.3
남 편	35.1	38.4	37.0	37.4
시부모	13.6	.0	11.3	.0
기 타	5.4	6.2	8.5	11.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 가족기능연구조사 (공세권 외, 1990) 자료.

그리고 학교 모임이나 각종행사 등이 도시에서 보다 훨씬 적으므로 대외활동을 남편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부인의 역할은 도시에서 보다 낮고, 농촌에서 남편의 대외활동 역할이 도시에 비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다.

家庭經濟活動은 부인의 주도율이 다른 가족원에 비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여기서 가정활동의 세가지 역할 중 남편

의 주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활동이며, 남편과 부인이 역할주도에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Table 9. 참조). 가족경제를 위한 역할의 지역별 분포는 도시나 농촌 모두 核家族의 부인(도시: 55.4%, 농촌: 51.3%)과 남편(도시: 38.4, 농촌: 37.4)이 擴大家族의 부인 (도시: 45.9%, 농촌: 43.2%)이나 남편(도시: 35.1%, 농촌: 3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擴大家族에서 시부모의 가족경제 역할주도는 도시에서 13.6%, 농촌에서 11.3%로 다른 활동에 비해 시부모의 역할 주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내에서 役割區分을 要約하면, 경제적 수입과 재산관리를 제외한 모든 가정내 활동은 부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농촌부인의 가사역할이 도시부인 보다 높으나 세부적인 대외활동, 경제활동은 도시부인에서 높았다.

반면에 남편의 가사 주도율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데, 이는 농촌에서 남편이 가정일에 관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부모에 대한 役割과 權限은 감퇴되고 있으며 남녀간의 역할에서 對外的 名義와 經濟收入에 대한 남자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육아나 가사활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영농에 직접 참여하는 농촌 여자에게는 여성역할의 多樣化는 물론, 過重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2. 農村婦人의 家族내 意思決定 參與

전국 농민 540명에 대하여 가족내에서 부부간에 영농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意思決定水準을 比較하였다(김일철 외, 1993 참조). 가족내의 활동에 부부가 참여하는 정도로서 농촌 여성들의 가족내 역할을 분석하였다.

경작할 작물을 남편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50.9%이며,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5.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販賣代金 管理의 경우는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가 49.8%로 경작할 작물을 결정하는 경우와 비슷하였으나 부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21.1%로 높았다(Table 8. 참조).

영농활동은 남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인의 營農參與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도 있다. 한국여성개발연구원(1987)에서 1987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사를 지을 작물을 결정하는데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가 62.2%(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 22.8% 포함)였던 것에 비하면, 5년후에 실시된 본 자료에서는 50.9%로 감소한 것은 여성의 영농참여 역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대규모의 이농으로 일손이 크게 부족하게 되면서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5가지 가사활동중에서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가 '집수리'(44.8%)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나머지 4 가지에서는 부인이 주도(식료품 및 옷 등의 구입)하거나 부부의 의사결정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살림의 구입이 전적으로 부인의 의사에 의존하므로 가족내의 가사활동은 주로 부인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문제나 혼사의 결정권이 미미하지만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은 대외적인 가사활동에서 남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8. 영농 및 가사활동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 정도 (단위: %, 명)

구 분	남 편	남편이주도 부인과의논	부인과 남편 동등하게	부인이주도 남편과의논	부 인	합 계 (N)
〈영농활동〉						
경작작물결정	22.8	28.1	43.9	5.2*		100.0(540)
농산물판매관리	27.6	22.2	29.1	21.1*		100.0(540)
〈가사활동〉						
자녀교육	9.3	12.8	63.8	9.4	4.8	100.0(540)
자녀혼사	4.1	9.3	75.8	6.7	4.4	100.0(540)
식료품등 구입	3.3	3.5	16.5	28.7	48.0	100.0(540)
큰살림 구입	5.9	13.9	58.7	10.2	11.3	100.0(540)
집수리	19.1	25.7	49.1	1.7	4.4	100.0(540)

주 : *에는 '부인이 혼자' 결정한다는 응답이 포함.

자료 :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조사(김일철 외, 1993) 자료.

앞에서 논의(Table 7. 참조)한 것과 같이 남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여 농촌여성의 역할이 가볍다기 보다는 여성이 직접 영농에 참여하면서 가족내의 역할(가정살림)을 주로 담당하고 대외적인 가사활동에서도 남편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부인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더우기 남성 중심적인 농촌사회에서 公式, 非公式的인 對外活動이 남편중심으로 이루어 지므로, 부인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집안 살림을 담당하면서 從屬的인 地位일 수 밖에 없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조옥라, 1991: 395-396 참조).

3. 婦人의 就業과 家庭生活

부인의 취업은 가사를 支援하기 위한 無給 從事者나 가계를 위하여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Table 9. 참조). 농촌에서는 취업부인의 약 3분의 2(65.4%)가 가사지원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생활비 보조(29.3%) 목적을 포함할 경우 94.7%에 해당된다. 도시의 부인들 경우에도 취업 목적이 주로 생활비 보충(62.0%)이나 가사지원(21.3%)이지만 자아실현이나 사회경험도 16.8%나 된다. 자아실현이나 사회경험을 위한 취업이 극소한 농촌 부인의 경우는 生存目的만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시부의 취업 여성들의 26.0%가 적성활용과 사회경험을 취업 목적으로 들고 있으나 농촌의 취업 여성들의 경우는 그 비중이 7.7%에 불과하였다(통계청, 1993: 85). 더우기 도시와 농촌 부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모든 농촌 부인이 취업하고 있으므로 취업에 따른 농촌 부인들의 역할의 과중과 정신적인 부담은 훨씬 크다고 하겠다.

Table 9. 지역별 여성의 취업동기, 취업에 따른 어려운점

(단위: %)

	전 국	도시부인	농촌부인
〈취업동기〉			
전체	100.0	100.0	100.0
	(1,299)	(709)	(590)
가사지원	41.4	21.3	65.4
생활비	47.0	62.0	29.3
자아실현	3.5	5.6	0.8
사회경험	8.1	11.2	4.4
〈취업에 따른 어려운점〉			
전체	100.0	100.0	100.0
	(1,296)	(707)	(589)
없음	30.7	30.6	30.9
자녀양육 및 교육	16.2	22.2	9.0
가족의 취업반대	1.3	1.7	0.8
가사역할	22.6	24.3	20.5

자료: 한국가족기능연구조사(공세권 외, 1990) 자료.

취업에 따른 어려운 점을 보면 농촌 부인의 役割過重에 따른 문제가 더욱 명확해 진다. 도시부인의 경우 취업으로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24.3%)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부담(22.2%)을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으나 농촌 부인의 경우는 영농에 참여하는 家事支援 目的이 主이므로, 취업을 하면서 가사일을 도맡아야하는 이중 역할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38.7%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사역할에 대한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경우(20.5%)도 높지만 자녀양육이나 교육(9.0%)의 경우는 극히 일부 부인들 만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만큼 가사역할과 영농을 함께 수행하는 二重役割의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4. 農村 家族生活의 어려운 點

농촌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어려운 점을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생활에서 직접적인 어려운 점을 분석한 다음 여성의 영농 참여에 따른 가족 생활상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였다.

'농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어려운 점을 우선 순위에 따라 주어진 항목 중에서 두 가지를 택하여 1번과 2번을 적도록 한 결과를 Table 10에 정리하여 놓았다(김일철, 1993: 28-29 참조).

Table 10. 농촌에서 가족생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어려운 점	첫 째	둘 째	누 적
자녀의 교육문제	42.1	13.0	27.5
건강문제	20.9	27.8	24.3
빈곤문제	13.6	25.7	19.6
자녀의 결혼문제	12.4	13.3	12.9
노인 부양	5.7	10.0	7.9
기타	5.3	10.2	7.8
합 계 (N)	100.0(540)	100.0(540)	100.0(540)

주 : 누적은 첫째와 둘째 어려운 점의 평균임.
자료 :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조사(김일철 외, 1993)

농민이 농촌에서 가족생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42.1%)였다.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20.9%)와 '빈곤문제'(13.6%), 그리고 '자녀의 결혼문제'(12.4%)순으로 응답하였다. 두번째 어려운 점을 합하여 누적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 농민은 농촌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어렵다(27.5%)고 느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강문제(24.3%)와 빈곤문제(19.6%)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촌 여성이 영농에 참여하면서 가사 활동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또한 地域的 不利로 良質의 敎育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농촌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농촌 여성의 도시진출에 따른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의 원인이 힘든 농사일과 경제적인 궁핍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들은 힘든 농사일에서 오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빈곤, 그리고 자녀교육상의 불리 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農村人口의 變化, 家族變化 및 農家經濟의 變化를 分析하므로서 농촌사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硏究는 農村家族의 安定과 農村社會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한 經濟, 社會發展計劃에 필요한 기초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農村社會의 老齡化는 社會自體의 自足的 發展能力을 喪失하게 하고 있으며, 生産能力의 減少, 地域開發을 위한 投資對象에서 除外, 그리고 殘餘 젊은 年齡層의 離農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農村의 生産性을 낮출 뿐만 아니라 生活環境의 惡化로 移村現象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移住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老人들의 1인 가구가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는 결과이다. 노인 1인 가구는 子女들의 도시 이주와 配偶者의 死亡에 따른 家口의 解體過程에 있는 경우로서 앞으로 농촌의 家族形態나 農村社會의 變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정내에서 家族員의 役割을 분석하면, 經濟的 收入과 財産管理를 제외한 모든 가정내 활동은 부인이 主導하고 있으므로 가정내 역할은 婦人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農村婦人의 家事役割이 都市婦人 보다 높으나 세부적인 대외활동, 경제활동은 도시부인에서 높았다. 남녀간의 역할에서 對外的 名義와 經濟 收入은 남자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육아나 가사활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營農에 직접 참여하는 농촌 여자에게 여성역할의 多樣化는 물론 過重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취업에 따른 어려운 점을 보면 농촌 부인의 역할과중에 따른 문제가 더욱 명확해 진다. 농촌 부인은 영농에 참여하는 家事支援 目的이 主이므로, 취업을 하면서 가사일을 도맡아야하는 二重役割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사역할에 대한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높지만 자녀양육이나 교육의 경우는 극히 일부 부인들 만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만큼 가사역할과 영농을 함께 수행하는 이중역할의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여성은 어려운 環境과 與件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농촌여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經濟社會的 문제들 이지만 미약하나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은 다음 몇가지 면에서 摸索될 수 있다. 첫째, 부족한 農村人力을 補完하기 위해 농기계를 作動 할 수 있는 능력이 培養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農家負債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소비지출의 合理性 提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농업에 대한 專門性 提高와 農外所得 增大를 위한 專門知識 習得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무분별한 都市移住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촌가정의 情緖的 安定에 기여하여야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1. 공세권 외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권태환 (1991) '인구변동과 한국농촌의 변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3. 세미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pp. 105～129.
4. 권태환, 박영진 (1993) 한국의 가구 및 가족유형, 통계청.
5. 김관수(1988),'농촌경제의 실태와 당면과제', 청람문화, 한국교원대학교.
6. _____ (1993),'충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고', 청주경제연구, **4**:1～32, 청주경제학회.
7. 김일철, 김태헌, 김홍주 (1993) 한국 농민의 희망과 불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8. 김주숙 (1988)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 연구사.

9. 김태헌(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한국 인구학회, **16**(2):1~23.
10. 김태헌 · 홍문식 · 장영식, (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통계청.
11. 농림수산부(1993), 농림수산 주요 통계.
12. 농촌경제연구원(1994), UR타결과 농정의 대응 방향,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결과 보고서.
13. 이정환 외(1992),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 방향, 연구보고 269,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4.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991), 총량부문: 인구분야계획(안),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인구분야계획위원회.
15. 조사통계국 (1962~1987), 각 연도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60-198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6. _____ (1988), 우리나라의 지역별 장래인구 전망,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7. 조옥라 (1991),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증대가 가족구조에 미친 영향',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간행위원회), 일지사, pp. 381~400.
18. 통계청 (1991), 장래 인구추계 (1990~2021).
19. _____ (1992), 199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
20. _____ (1993), 1993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